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**보도참고자료** 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해외투자과 송요한 과장(2110-5109), 고승진 사무관(2110-5377)
섬유세라믹과 안병화 과장(2110-5651), 김범식 사무관(2110-5485)

김재홍 차관, 신발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

- 신발 U턴 기업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 청취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 김재홍 제1차관은 2013.6.13(목) 12:20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부산시 신발 관계자, 한국신발산업협회장, 신발업계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음

* 간담회 참석자
  - 부산시: 경제산업본부장, 기간산업과장, 투자유치과장
  - 기업 : 한국신발산업협회 권동칠 회장(트렉스타), (주)학산 김영창 사장, (주)에이로 채경록 대표, (주)고려TTR 김선남 대표, (주)일신핫퓨전 윤래원 대표

○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과거 해외로 진출하였던 신발기업들의 국내 U턴을 계기로 신발산업 재도약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,

○ 신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고, 신발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

○ **① 신발업계 현황 및 U턴 동향 ② 신발 생산 공정 자동화 등 신발산업 발전방향**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

□ **(업계 동향)** 부산 신발업계는 최근 중국 진출 신발기업 5개사*의 U턴을 계기로 신발산업의 부흥을 추진하고 있음

* 현재 5개사가 부산으로의 U턴을 결정하였으며, 4개사가 U턴 검토 중

○ 부산시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32,000평 규모의 신발집적화단지 조성 중이며, U턴 기업 3개사 등 9개사가 입주할 예정임

○ 한국신발산업협회 권동칠 회장은 신발기업들이 U턴하는 배경은 "최근 중국의 인건비가 매년 15%이상씩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, 한국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고, Made in Korea 브랜드 가치가 중국산보다 훨씬 높기 때문"이라고 함

○ 부산시와 신발업계는 U턴 기업 및 국내 신발기업의 집적을 통한 소재-부품-완성업체 간 클러스터 형성으로 신발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, 바이어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함

□ **(간담회 논의사항)** 이 날 간담회에서는 신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신발산업 발전방안을 집중 논의함

○ 신발업계 대표들은 국내 신발기업뿐만 아니라, U턴 기업의 경우 입주를 위한 부지 및 인력 확보 문제가 U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았으며,

○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인력수급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, 부지의 경우 기업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추후 확보하여 입주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힘

○ 부산 신발산업 발전방안에 관해서는 부산시가 업계와 함께 추진중인 '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'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

○ 산업부는 신발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과제 지원(핵심제조기술, 공법), 무재봉 기술 개발 등 R&D과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

- 도심 노동력 활용을 위해 신발허브융합센터 건립을 검토하는 한편 신발-섬유간 협업을 통해 신소재 개발 등 산업간 융합을 촉진키로 하였음

○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발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,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방식을 탈피해, 기술개발, 생산 공정 자동화 등 생산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함

□ 김재홍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“최근 해외진출 기업들의 U턴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여 다시 한번 부산이 신발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하면서,

○ 신발업계에 대해서는 “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하는 한편, “정부도 업계의 요청에 대해 귀기울이고, 업계와 함께 신발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약속함.

□ **(신발 U턴 기업 방문)** 한편, 김재홍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최근 국내로 U턴한 (주)에이로를 방문하여 다른 신발업체에 비해 선구적으로 추진 중인 공정 자동화 계획을 청취하고, 관계자들을 격려함

○ 미국, 이태리 등 신발산업 선진국의 자동화 공정 영상을 시청하고, 제조 공정 자동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

○ 김재홍 차관은 “신발산업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과거처럼 노동집약적인 생산 라인을 그대로 고수해서는 안된다“며, ”향후 (주)에이로가 자동화 공정을 다른 업체뿐만 아니라, 동남아 등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면,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“이라고 밝힘

붙임 : 신발 U턴 기업 현장 방문 및 신발업계 간담회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고승진 사무관(☎ 02-2110-537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신발 U턴 기업 현장 방문 및 신발업계 간담회 개요

□ 추진 배경

○ (현장방문) 최근 U턴 추진 중인 신발 기업((주)에이로)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 및 신발 공정 자동화 계획 청취

○ (간담회) 신발 업계 동향, 업계 애로사항 및 발전 방향 논의

□ U턴 기업 현장 방문

○ (일시/장소) ‘13.6.13(목) 11:20~11:40/ (주)에이로(부산 사상구 소재)

○ (내용) U턴 추진 배경, 향후 국내 신발 공정 자동화 계획 등

□ 신발기업 간담회

○ (일시/장소) ‘13.6.13(목) 12:20~13:30/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

○ (참석자) 차관,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, 신발기업 대표 등

- (산업부) 차관님, 해외투자과장, 코트라 해외투자지원단장 등
- (부산시) 경제산업본부장, 기간산업과장, 투자유치과장 등
- (기업) 한국신발산업협회장, (주)학산 등 신발기업 대표 4인

□ 시간계획

구 분	시 간		주 요 내 용	비 고
이 동	10:00 ~ 10:55	55′	김포공항 → 김해공항	KE1107
	10:55 ~ 11:25	30′	김해공항 → U턴 기업	
현장 방문	11:25 ~ 11:45	20′	신발 자동화 공정 계획 시찰	(주)에이로
이동	11:45 ~ 12:20	35′	U턴 기업 → 신발산업진흥센터	
오찬 간담회	12:20 ~ 12:30	10′	신발 전시관 방문	1층 전시관
	12:30 ~ 13:30	60′	신발 기업 간담회	3층 회의실
이 동	13:30 ~ 13:40	10′	신발산업진흥센터 → 르노삼성	